

## 人間形成에서 본 韓國體育의 史的 考察

교양과 이 병 식  
조교수

### I. 序 論

體育은 곧 生活이며, 教育의 한 場이다. 人類의 歷史와 더불어 生存競爭의 手段으로써 시작된 身體活動은 차츰 防衛의 目的으로, 教育的 目的으로 변천되어 왔다.

오늘날 우리는 자주 現代教育이 人格教育에 失敗했다는 말을 듣고 있다. 教育의 目的이란 어디까지나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것, 즉 知·德·體를 갖춘 인간을 養成하는 것을 本然의 임무라 할진대, 人格陶冶에 充實하기 보다는 第二次的, 第三次的인 것에 기울어진 結果라고 생각된다.

오늘날 教育目的을 實現하기 위해 學校體育이 教育의 한 일면을 차지하고 있다는 事實을 상기할 때 歷史적으로 體育이 人間形成에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 考察해 보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한 나라의 富強은 그 나라의 體育, 스포츠의 발전도와 정비례 현상을 나타냄을 볼 수 있다. 지난날 우리 조상들의 皂衣仙人道와 花良道精神을 통하여 볼 때, 고구려의 용맹성과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고사는 이러한 체육·스포츠의 이념 아래 이루어진 결과라 아니 할 수 없다.

體育·스포츠의 기본이념이 그러하듯 한 나라의 청년들이 精神的으로나 身體적으로 健全할 때, 그 國家나 社會는 커다란 희망과 기대 속에서 발전하였다. 평화시에는 生産力을 확대하고 비상시에는 軍事的으로 대응할 수 있는 兩面體制의 力量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

'위터루 회전은 이튼경기장에서 승리했다'는 말을 더듬어 보면서 체육·스포츠의 活動을 통하여 어떤 人間을 育成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더듬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體育이 他敎科와는 달리 大筋肉活動에 依에서 이루어지는 身體育成으로부터 들어간다는 事實이다.

百問不如一見이란 말보다 百知不如一行的 道를 닦는 것이 體育이라 하겠다. 이러한 現代的 狀況과 人間育成的 觀點에서 體育이 時代와 社會의 변천에 따라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오늘 에 이르렀는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 本 論文은 光州 保健專門大學 學術研究 조성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II. 原始社會의 體育과 人間形成

身體活動은 人類의 歷史와 더불어 시작되었으며 原始社會는 體育이라기 보다는 身體活動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身體活動은 生과 직접 연결되는 衣·食·住를 해결되는 과정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原始社會의 身體活動은 人間이 生活必需品, 즉 食物을 얻는 것이 중요한 활용이었으며, 달아나는 먹이를 쫓는 데서 달리기를 鍊磨하게 되고, 손이 닿지 않은 큰나무 위에 달린 열매나 날아가는 새를 잡기 위해 던지기를 배웠다.

그리고 도랑이나 쪽을 넘기 위해 조약력도 길러야 했을 뿐 아니라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헤엄을 쳐야 했다. 이런 活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튼튼한 身體와 強勇이 필요했고 集團이나 部族을 外侵과 맹수로부터 保護防衛하는 데 있어서도 個人的으로 團體的으로도 強勇한 武術의 訓練과 習得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따라서 原始社會에 있어서는 어느 種族이나 部族을 막론하고 體育的 발전의 樣相은 公同적으로 生活을 위한 하천, 해안에서의 漁類며, 山野에서 動植物의 採取나 捕獲하는 기술과 부족간의 전투를 목적으로 武術鍊磨의 武藝體育으로 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原始社會의 身體活動은 生存權을 目的으로 하였으며 智慧와 함께 점차 발전하여 활이나 창같은 기구를 사용하게 되었고 技術도 비례하여 발전을 가져왔으며 모방·기억·반복·연습 등의 原始的인 教育方法도 取해 지기 시작했다.

原始人들은 눈에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超人間的인 힘의 支配를 믿었으며, 天災地變이나 不漁不獵이 계속되면 祭를 올렸다. 이 行事は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노래와 무용 등의 신체운동이 행하여 졌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소집단은 차츰 커져 氏族社會는 部族으로 옮겨 지거니와 原始社會에 있어 特記할 만한 것으로 成人式을 들어야 할 것이다.

이 制度는 集團安保의 한 手段으로 原始韓民族에서도 行하여 졌다. 즉 魏志東夷傳에 의하면 「官家로 하여금 성곽을 쌓게 되자 나이가 어린 勇健者는 모두 등가죽에 구멍을 뚫고 밧줄을 통했다. 또한 大許의 나무를 꺾고 은종일 歡呼하며 힘을 써도 아프다고 하지 않았다.」<sup>1</sup>고 기록되어 있다. 이 밖에도 알려진 내용으로는 斷食을 하게 하고, 생매장을, 이를 맨다든가, 몸에 심한 상처를 입히는 등, 여러가지 심한 苦行을 強要하여 마침내는 失神狀態에 빠지게 되며 그로부터 깨어났을 때는 그는 전혀 嬖人으로 대접을 받게 되었다.

이때부터 그는 한 成人으로서 青年集團의 一員으로 編入되는 것이었다.<sup>2</sup>

이상의 考察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sup>1</sup> 三國誌 魏書, 30, 東夷(韓鮮史 제一권, p.30)

<sup>2</sup> 教育史 韓基彥 法文社, p.17.

첫째, 衣·食·住의 해결 내지는 集團安保를 위한 身體活動이었으며 최소한의 生存權을 지키기 위한 外面的인 人間形成에 있었다.

둘째, 體育의 觀點에서 보았을 때 基礎運能力 내지는 과도적 영역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原始社會의 人間形成은 人間이 지닌 限界克服의 발자취를 남겼다.

### III. 部族國家의 體育과 人間形成

歴史가 始作되기 前에 백두산을 중심으로 우리 조상들은 한반도 東南쪽으로 海岸과 산간 계곡을 따라 유랑하며 漁獵·採取·유목 등을 영위하면서 송화강·압록강·대동강 부근으로 진출하여 農耕生活을 하게 되면서 정착생활을 하게 되어 部族國家를 이루게 되었다.

體育史의 면에서 볼 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한 手段으로 身體活動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부여 사람들은 점점마다 제각기 갑옷과 무기를 갖고 있어 적이 쳐들어 올때는 전부락민이 군사가 되고 부락의 장이 총수가 되어 싸우는 것이었다.」<sup>3</sup>

部族國家들 사이에는 財物, 勢力 등을 위하여 다른 種族을 정복하기도 하고 種族끼리 연합하기도 하여 초기적인 王國形成 과정을 밟게 되었다. 王位는 세습적인 制度가 아니라 그 部族中에서 武藝나 힘이 뛰어난 자로 항상 교체되었던 것이다.

우리 삼국사기에 「고구려 동명성왕은 활을 쏘는 데 백발백중이었으므로 금와왕의 장자인 대소와 여러 신하들이 이를 죽이려고 하므로 졸분주에 가서 왕이 되었다」<sup>4</sup>는 기록으로도 알 수 있다. 이렇게 部族國家 時代에는 生活을 위하여 自然이나 맹수와 싸우고, 部族 또는 部族內에서의 勢力다툼을 위하여 무예를 닦고 그 무예의 바탕이 되는 강한 精神力과 體力의 培養이 절실하였다. 이에 따라 武藝를 중심으로 한 體育이 행해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시 體育의 目標은 강한 鬪爭力을 기르는 好戰의인 人間像을 추구함에 있었던 것이다.

鬪爭能力의 養成을 目標로 한 部族國家의 體育으로는 달리기·뛰기·던지기·격투·수영·짐지기 등의 基礎的인 運動能力의 養成이 중요시 되었다. 당시의 병역에 관한 제도는 부락민이 자신들의 生活을 개척하기 위하여 自然的으로 武藝와 싸움에 관해 연습하고 대적의 방도를 틈틈히 하려는 農兵一致의 自然發生的인 開兵制度였다.

이리하여 武藝와 싸움에 관해 병사적 훈련에는 활쏘는 技術과 칼쓰는 수법이 무예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다.

진서에 「마한 사람들은 칼·활·방패·창 등을 갖고 서로 싸우다가도 항복하면 관대히 대했다.」<sup>5</sup> 하였으니 원수라도 鬪爭力을 상실하면 동정을 나타내는 무사도를 엿볼 수 있다.

<sup>3</sup> 삼국지 위지 동이전 부여조, p.45.

<sup>4</sup>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시조 동명성왕조, p.18.

<sup>5</sup> 진서 사이 마한조, p.97.

體育의 發達은 東西을 莫論하고 國防能力과 戰鬪機能의 향상을 目標로 한 武藝에서 비롯하였다는 것은 日本의 이마무라 요시오는 그의 著書 體育史 가운데서 고대국가인 이집트·앗시리아·페르시아·페니키아·바비로니아 등의 체육사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sup>6</sup>

이렇게 身體活動은 民族이나 部族을 保護하는 生活과 國防의 手段으로 절대 必要條件이었으며, 自然發生的으로 遊戱活動을 수반하게 되었다. 遊戱의 발달은 身體的·知的·精神的·社會的 발달의 表現이며 각 시대의 풍속과 生活環境의인 특성이 내포되어 있다.

遊戱의 歷史的 發展 樣相을 보면 그 時代의 社會的 특성이나 생활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민속은 민족을 닮고 유희·오락은 시대를 닮는다.’ 民俗은 民族의 열이요 유희와 오락은 시대의 열이라고 하겠다. 민속·유희·오락으로 그 시대의 민속 기강이나 人間形成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 時代는 農耕社會로서 천신·태양·산악 등의 自然界를 숭봉하는 原始信仰·民間信仰이 하나의 生活 양식이었다. 5월의 파종, 10월의 추수가 끝나면 군중이 모여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풍속이 있었다. 이는 部族에 따라 영고·무천·동맹·10월제라고 불렀으나 거의 같은 祭典이었던 것이다.

삼국지 위지에 「부여 사람들은 은정(12월)에 천제를 지내고 軍중대회를 연일 열어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을 즐겼는데, 이를 영고라 한다.」 하였고 또 후한서에 「옛 사람들은 항상 10월에 천제를 지내고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을 즐겼는데 이를 무천이라 한다.」<sup>7</sup> 이렇게 祭典을 중심으로 음주를 배풀고 즐기던 노래와 춤은 지금껏 전하여 오는 농악에서 그 자취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농악을 비롯하여 여흥으로 온갖 유희·오락을 즐기던 것이 점차 경쟁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의 競技·遊戱 등에서 그 기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근거 없는 말은 아니다. 또 이러한 것은 올림픽아 경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時代의 環境條件 등으로 미루어 보아 씨름 등의 투기행사가 있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다.

遊戱活動은 原始社會로 올라갈수록 生活속에서 한부분 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部族國家時代에 遊戱活動은 部族間에 團合과 和合·융화 뿐 아니라 社交場의 역할을 담당했으며, 人間 상호간의 이해증진을 도모했을 것이다. 遊戱活動은 理性的인 人間形成을 追求하는데 力을 用한 것이다.

部族國家의 體育活動은 體育이라기 보다는 身體活動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教育的인 면에서 人間育成이라 보며 과도기적 現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sup>6</sup> 일본동경 체육과학사 제4판, 1955. p.103.

<sup>7</sup> 註(1)과 같음

<sup>8</sup> 상계서 후한서 예조, p.47.

이상의 考察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戰鬥力을 目標로 한 好戰的인 人間像을 追求하였다.

둘째, 遊戲活動을 통한 知的·情緒的·社會性을 培養함과 더불어 부족간의 단합과 융화를 目標로 했었다는 것이다.

셋째, 戰鬥力을 상실한 자를 용서할 줄 아는 무사도의 출현을 가져 왔으며, 人道的인 人間像의 면모를 찾을 수 있다.

#### IV. 三國時代의 體育과 人間形成

##### 1. 新羅의 體育과 人間形成

氏族社會나 部族國家에 있어서도 同族相爭은 國家가 커질수록 그 규모도 커져갔다.

사적에 의하면 신라건국이 BC 57년이며 국가적 발전상을 본다면 신라는 韓半島의 東南端에 위치하여 토지로 肥次하지 못하며 北에 強大한 高句麗와 百濟를 상대하여야 했으므로 建國初期부터 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북방대륙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大陸과의 마찰은 없었고 비교적 평온한 편이었으며, 우리의 固有思想의 確固한 啓發을 이룩하는 安全地帶가 되었다.

三國이 同一한 民族이며 同一한 固有의 思想과 信仰에 立脚하면서도 覇者가 되어 民族統一을 이룩하려는 爭霸戰이 벌어진 民族相互間의 전란시기였다.

신라에서는 특히 징병제를 채택하여 정병주의에 입각한 무사를 양성하였다.

중국의 수서에 「신라는 썩썩하고 굳센 사람을 뽑아 군대에 들여보내 같은 대오에 머물게 하였다.」<sup>9</sup> 이런것으로 미루어 보면 신라는 병사를 엄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신라는 청소년으로 조직한 花郎道는 武士道의 精神을 培養하는 것이 目標였으므로 武藝가 중시되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百濟와 高句麗도 그에 못지않게 武藝를 숭상하였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서로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던 戰國時代에 있어서 고도한 武藝가 요청됨에 따라 무예에 수반되는 戰鬥能力養成을 目的으로 하는 體育이 행해졌을 것은 물론이다. 이 時代는 武士와 武術의 萬能時代였다. 따라서 武藝와 武力이 尊重되었고, 武士가 當時의 社會를 支配하게 되었으며, 朝廷에 있어서도 무사가 실권을 장악한 무사시대였다. 三國의 始祖가 전부 무사였음도 이런 사실을 雄辯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대는 서로 침략해 가며 싸우는 시대로 문보다 무를 숭상하였다. 이 숭무정신은 특정한 무사들에게만 한한 것이 아니고 모든 國民이 이 기풍을 培養함과 아울러 教育的 側面에서도 武士教育이 주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國家的 요청, 국민적 지지, 사회적 배경 밑에서 화랑도와 같은 무사도가 확립되었다. 이와 같이 확고한 무사도의 영향 밑에서 행해진 體

<sup>9</sup> 隨書, 81, 列傳第 46, 東夷 新羅條

育은 철저한 意志의 體育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時代의 배경 밑에서 의지적으로 행해진 체육과 무예를 통하여 형성되었던 당시의 인간상이 화랑도의 지표인 五戒의 綱領에 나타나고 있다. 화랑도의 이 다섯가지의 基本綱領은 첫째, 事君以忠이오 둘째, 事父以孝이며 셋째, 交友以信하며 넷째, 臨戰無退하며 다섯째, 殺生有擇이라 하였으니 위와 같은 愛國忠誠과 父母에게 孝道하며, 交友하되 信義로 하고 戰場에 臨하되 後退함이 없고 殺生을 하되 가려서 하고 義와 雅量을 베풀고 야만적인 행동을 삼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 다섯가지의 大業名分을 生活信條로 하여 花郎道의 정신을 體得하는데 있었으며, 知的·情緒의 陶冶까지도 목표로 한 고대 그리스적 인간상을 追求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社會的·政治的·宗教的·軍事的 生活에 알맞는 조화적 인간상을 형성하는 고도한 무예의 체육이었다.

花郎道의 教育은 讀書·武藝·心身鍛鍊·情緒陶冶와 名勝古蹟의 순례를 통하여 人間形成이 이루어 졌다. 이상의 考察을 요약하면 첫째, 이 시대는 心身の 調和를 理想으로 하는 人間形成이 의도적으로 育成 되었다.

둘째, 儒·佛·仙, 宗教的·社會的 배경 밑에는 人間形成이 이루어졌다.

셋째, 레크레이션적인 現代의 의미에 미칠수는 없지만 여가를 즐기는 생활속에서 단체의 일원으로 육성되었다는 것이다.

## 2. 百濟의 體育과 人間形成

北에는 高句麗, 東南으로는 新羅와 접경을 맞대고 三國이 완전히 정립상태를 이루어 서로 爭霸鬪을 벌여 國內外的으로 恒常 交戰狀態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統一을 위한 勇猛果敢한 武士育成은 至上의 과제였으며 이 目標를 向하여 체육이 무예의 수단으로 活用되었다. 이렇게 서로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던 戰國時代에 있어서 항상 고도한 무예가 요청됨에 따라 무예에 수반되는 戰鬥能力養成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이 행하였음은 물론이다. 이 시대는 서로 침략해 가며 싸우는 시대로 문보다 무를 숭상하였다. 이 尙武精神은 특정한 무사들에게만 한한 것이 아니고 모든 國民이 이 기풍을 배양함과 아울러 教育의面에서도 武士教育이 활발하게 실시되었을 것이다. 수서에 「백제풍속에는 기사·독서를 숭상한다.」<sup>10</sup> 이런것은 기사가 무예로서 상당히 숭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사는 다른 무예와 달라 말 위에서 행하는 궁술이므로 거기에겐 강건한 정신력·체력·민첩한 동작과 고도에 달한 기능이 필요하였다. 이를 기초적인 연무가 얼마나 격렬하게 행하여 졌을 것 인가는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무수단으로는 궁사·격구·수렵·석전 등이 집단적으로 매우 왕성하게 행하여 졌다. 또한 독서를 숭상하였다는 것은 人間形成에 文과 武를 겸비한 완전한 人間像을 理想으로 삼았다는 사실이다.

<sup>10</sup> 상계서 수서 백제조, p.87.

이 時代는 戰國時代에 처해 있었으므로 유희·오락·스포츠 등에서도 武術的인 무예가 유희나 오락화한 경향이 짙다. 예를 들면 군사적인 사냥·궁술대회 등이 그것이다. 또 당시는 봉건적 계급성이 강하였기 때문에 민속유희·오락이나 스포츠 등에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투호·격구·악삭·농주 등은 상류계급의 사교적 성격을 띠고 행해진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또 서민계급에서는 씨름·노래와 춤 등 기타 민속오락이 성행되었다. 그리고 일반대중적 민속오락은 불교행사와 무제행사 등의 축제의식과 결부되어 경축여흥으로 행하여 졌으며 하나의 통치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佛敎의 傳來와 더불어 大陸과의 文化交流가 성했던 때이므로 文物制度가 정비되어 이미 미개한 時代에서 벗어나 상당히 文明된 社會가 이룩되었으며, 따라서 무예를 연마하는 한편, 생활을 즐기기 위한 각양각색의 遊戱와 오락이 성행 되었다. 그것은 주로 대륙에서 들어온 것으로 民族固有의 유희오락과 아울러 행해 졌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근대체육의 범위속에 속하는 유희·오락 또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채롭게 성행되었다. 수서에 「백제풍속에 투호·저포·악삭·농주놀음이 행해졌다.」<sup>11</sup> 라는 기록으로 보아 당시의 사람들이 文化的으로 스포츠를 즐겼음을 알 수 있다. 또 「백제의 아신왕은 장성하며 호탕하고 인품이 뛰어나며, 매 사냥과 말타기를 즐겼다.」<sup>12</sup>는 기록으로 보아 군사적인, 武術의 성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時代의 유희와 오락은 자연스럽고 모든 국민의 生活과 직결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의 유희 중에 활쏘기·석전·수렵대회 같은 것은 하나의 연무수단이였으며, 때로는 무사의 스포츠 또는 여가를 즐기는 레크레이션적인 것이었다. 百濟의 敎育制度에 대하여는 文獻에 보이지 아니하므로 알 길이 없으나, 古爾王 2年(285)에 일본에 친자문을 傳했다는 것으로 보아 훌륭한 敎育制度가 있었다는 것을 쉽게 추이할 수 있다. 古爾王時代에 制定된 官制가운데는 文督과 武督이 있었는데 이는 文과 武를 掌理하는 職位로써 敎育이 文武를 겸비하는 人間敎育에 중점을 하였다는 것이다. 백제의 계백장군이 백제멸망의 最後의 出戰에 앞서 生의 미련을 끊기 위해 처자를 죽이고 출전한 悲壯한 殉國精神 등은 百濟의 節儉높은 무사도정신의 精粹라 할 수 있고 저 四泚水 푸른물에 晝夜같이 몸을 날린 삼천궁녀의 애절한 節行은 儒敎思想이 社會敎化에 있어 큰 감화와 영향을 주었다는데 누구도 반론을 제기치 못하리라. 이상의 고찰에서 첫째, 문무겸전한 人間形成이 의도적으로 육성되었다.

둘째, 유교사상이 人間形成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가치관의 설정으로 육성되었다.

셋째, 유희활동은 단체의 일원으로 육성되었고 협동심의 배양 및 군사적인 놀이로 자연스럽게 독창적으로 이루어졌다.

<sup>11</sup> 삼계서 수서 백제조, p.89.

<sup>12</sup> 삼계서 삼국사기 백제 아신왕조, p.67.

### 3. 高句麗의 體育과 人間形成

史籍에 依하면 BC37년에 진국한 高句麗는 北方外敵의 끊임없는 침략위협과 신라 백제가 서로 爭覇戰을 벌려 國內外的으로 兵制나 武藝가 발달하였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던 戰國時代에 있어서 항상 고도한 무예가 요망됨에 따라 무예에 수반하는 戰鬥能力 養成을 目的으로 하는 體育이 행하여 졌음은 물론이다. 한편 소수림왕 2년에 처음으로 전래된 불교의 영향은 文物制度가 開花되고 여러 학문·예술 등이 갑자기 일어남에 따라 체육도 의지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 특히 高句麗의 尙武精神은 특정한 무사들에게만 한한 것이 아니고 모든 國民이 이 氣風을 배양함과 아울러 教育面에서도 무사교육이 실시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國家的要請·國民的支持·사회적배경 밑에서 굳건한 무사도가 확립되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 시대적 요청에서 행해진 무예 등을 여러 문헌에서 살펴보면 「고구려 병기에는 갑노·궁진·도삭·극삭·모연이 있다.」<sup>13</sup> 또 남사에 「고구려 사람은 육체의 힘과 정신력을 숭상하고 활·화살·칼·창 등의 병기와 갑옷 등에 있어 싸우는 무술을 익혔다.」<sup>14</sup> 이러한 연무수단으로 궁사·격구·수렵·석전 등이 集團의 으로 매우 왕성하게 행해 졌으며 특히 국왕이 참석한 것을 보면 그것은 하나의 국가로 행해 졌을 것이요, 한편 일반국민들 간에서 얼마나 열광적으로 행해 졌는가는 능히 상상할 수 있다. 수서에 「고구려는 매년 봄과 가을의 교렵에 임금이 친히 참석하였다. 또 매년 초에 패수가에서 놀때 임금이 사열한 후 좌우 두패로 나누어 서로 물을 뿌리고 돌을 던져 소리치르며 달려가서 쫓기의 승부를 2,3차 하고 중지하였다.」<sup>15</sup> 는 행사들을 보고 당시의 武士들이 이러한 행사를 通하여 武藝機能과 담력을 수련하는 동시에 정신을 길러 국가와 개인을 위하여 희생하는 정신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自然에 접함으로 好然한 人間像을 추구하는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이 시대는 유희·오락·스포츠에 있어서도 武術的인 무예가 遊戲오락화한 경향이 짙다. 예를 들면, 군사적사냥·궁술대회 등이 그것이다. 후한서에 「고구려 사람은 위기·투호의 놀음을 좋아하고 축국을 잘한다.」<sup>16</sup> 는 기록으로 보아 생활을 즐기기 위한 다양자색의 유희나 오락이 매우 성행되었으며 민속오락이 가정적·집단행사로 행해졌다. 心身の 調和的 發達을 理想으로한 人間像의 追求는 고대 그리스적인 人間像의 추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사회적·정치적·종교적·군사적 생활에 알맞은 人間형성에 의한 교육에 행해졌다고 본다. 특히 高句麗의 부무정신은 高句麗인의 기상을 함양하는데 있어 일익을 담당하였다. 皂衣仙人道는, 시대적 요청에 청소년을 중심으로 무사단을 조직하여 皂衣仙人을 首領으로 추대하고 이를 국가적으로 訓練하고 장려한 신라의 화랑도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제도에서 高句麗 불굴의 尙武精神이 배양되었고 乙支文德

<sup>13</sup> 주서 이역도 高구려조, p.38.

<sup>14</sup> 남사동이 高구려조, p.27.

<sup>15</sup> 상계서 수서 高구려조, p.38.

<sup>16</sup> 상계서 후한서 高구려조, p.48.



같은 문무겸전한 聖雄이 배출된 것이다. 조의선인도의 교육은 진두에 나서면 大將軍이 될 무예와 智謀을 갖추고 국정에 있어서는 治道の 師表가 될 유능한 文武兼全의 人材의 양성과 확보에 두고 이를 이상으로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교육제도는 大學과 扁堂이 있는데 大學은 最高學部의 國立大學으로 문헌에 의하면 「小獸林王 2년에 太學을 세우고 子弟를 가르치다.」<sup>17</sup> 하였으니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의 일이다. 太學의 敎科內容은 문헌에서 밝힐 수 없으나 扁堂教育에서 독서·習射·武術이 아울러 行해진 완벽한 문무겸비의 교육이 실시된 것으로 보아 大學의 교육내용을 이러한 文武兩全의 교육이었다는 것을 充分히 推察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고찰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고구려 尙武精神은 실천력 있는 행동의 인간상을 추구하였다.

둘째, 皂衣仙人道를 통한 문무겸전의 인간형성이 교육의 目標였으며 유·불·선교의 영향아래서 의지적 인간상의 추구에 있었다.

셋째, 자연에 접함으로써 호연한 인간상을 추구하였으며, 유희활동을 통한 무예기능과 단체원으로 협동심과 단결심을 배양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人間形成이 의도적으로 육성되었다.

## V. 高麗時代의 體育과 人間形成

후삼국의 통일을 보게된 고려는 大陸방면의 요·금·원 세강국의 세력이 항상 동남쪽으로 진출하므로 외교 혹은 무력으로 항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말하자면, 고려사는 주로 북쪽 종족과의 鬪爭이라고 볼 수 있다. 고려초의 성격은 신라문화를 계승하여 強健한 군인의 손으로 새로운 정치를 베풀었던 데에 있다. 중국문화의 영향·불교의 전성·북방종족의 침범으로 고려말에는 문약의 폐가 나타나게 되었다.

고려의 佛敎는 內面的, 즉 정신을 지배하면서 고도한 불교문화를 건설하였으며 유교는 外面的, 즉 정치체제를 지배하면서 학문과 정치면에 이바지 하였다. 그러나 고려는 불교국이었으므로 유교가 대체로 진흥하지는 못하였으나 여말에 융성되어 문약을 가져왔다. 교육기관으로 國子監(종합대학)에 7과를 설치하여 그 과목중 무학의 한과에 8명을 두게 된 것은 하나의 특색이다. 무학의 과를 둔 意義는 당시 북쪽의 여진족과 관계가 복잡다단한 때이니 만큼 무관을 양성하여 국방을 튼튼히 하고자 한데 있었으며 고려시대의 체육도 역시 戰鬥能力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이었고, 儒學으로 治國平天下를 시도하여 이에 따른 政治·敎育의 制度아래 漢學이 융성하고 文臣이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됨에 따라 武臣이 천대를 받는 경향이 생겨 文·武臣間에 알력을 연출함에 문약의 폐가 나타나게 되었다. 文과 武는 양수레바퀴와 같다는 공자의 가르침은 행동의 인간과 지혜있는 인간을 하나로 구현한

<sup>17</sup> 당서(220 列傳 제145)동이 고구려조.

인간형성에 있었으나 이 양자가 서로 반목함에 따라 고려조의 人間形成은 조화있는 人格陶冶에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 국가감에 武學의 科를 설치함에 있어서도 文臣간에 적지 않은 반대의견이 나왔지만 예종(1109)은 마침내 「문무 양학을 갖추어 장래의 장수와 재상을 양성하리라고 명령하였다.」<sup>18</sup> 이와 같이 무학의 필요성을 밝히고 무학제지론을 억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고려사회는 유학으로 치국평천하를 시도함에 따라 한학이 융성하고 文臣이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됨에 따라 文武臣間에 알력이 연출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된 것이다.

삼국시대의 호연한 기상인 무사도정신은 차츰 빛을 잃어 이 땅에 외침의 난을 겪게 되었으며 삼국시대보다 민족의 독자적인 文化를 창조하지 못한 느낌이 있다. 그러나 고려는 태조가 통일한 후 부병제를 채택하여 북방여진족 등의 침해를 방지하였다. 이 시대는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무사가 중요시되었으며 戰鬪力을 目標로 武藝의 體育으로 성행되었다. 그러나 성종이후 유학은 私學을 中心으로 날로 그 社會的인 地位가 높아감에 따라 武學은 低下되고 崇文輕武의 思想이 顯著해 지더니 鄭仲夫가 난을 일으켜 이것을 계기로 武人의 政權을 잡게되고 儒學者·文人 등을 마구 殺害하여 남은 文人들은 목숨을 이어가기에 바빴다. 이로 인하여 권세있는 武臣간에는 정권쟁탈을 목적으로 사병을 양성하면서 무예를 훈련시키는 데 몰두하게 됨에 침체되었던 무예는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들 무관들은 연약한 유신문사들의 사대주의 사상을 배격하고 자주정신을 길렀던 것이다. 이러한 전형적인 예로써 거란의 성종에게 사로잡힌 강조가 '나는 고려사람이어늘 너의 신하가 될까보나'고 끝끝내 항복하고 귀순할 것을 거부하여 마침내 비참한 죽음의 길을 택한 사실은 고려사람의 굳건한 지조와 기백을 나타낸 것이다. 또 양규, 강감찬, 윤관, 탁준경 등의 무사는 한치의 강토도 양보하지 아니한 일, 최충현 일족과 김준, 임연 등의 대몽항쟁·삼별초 난 등은 모두 무인들의 자주독립정신과 전통적 충국애국정신의 발로인 것이다. 이러한 자주독립적·철저한 무사정신이 넘쳐 흐르는 시대이니 만큼 당시의 무예 또한 격심하게 연무되었을 것이 물론이다. 그 연무수단으로서의 체육도 활발하였을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이러한 고려시대의 체육을 살펴보면 고려사에 「군사란 성질이 강하고 악한것을 막으며 어지러운 범죄자를 벌하는 것이다. 임금은 진실로 폐할 수 없는 것이요, 군사제도의 성공여하에 국가의 평안함과 위험이 좌우되는 것이다.」<sup>19</sup> 하였고 동서에 「선종 8년(1091) 8월에 도병마사가 임금께 아뢰기를 세상이 태평하여도 위기를 잊지 않는 것은 나라의 급히 할 일이니 제령의 군사 및 활쏘기를 배우는 자에게 모두 익히게 하여 과녁을 맞추는 자가 있으면 주발 널평상 하나를 상으로 주자하니 임금이 허가 하였다.」<sup>20</sup> 하였는바 외척을 방어하기 위하여 군사 및 국민이 항상 활쏘기 등의 무예습득에 힘썼음을 알 수 있다. 동서에 「의종

<sup>18</sup> 고려사(전14) 예종세가 11년 4월 경진조

<sup>19</sup> 상계서 고려사 지전제 35, 고려사 81.

<sup>20</sup> 상계서 고려사지전제(5) 고려사 81병조.

3년 2월, 왕은 효용기사 18명을 뽑아 궁중의 뒷뜰에서 격구하는 것을 보았다.<sup>21</sup>라는 기록 등을 볼 수 있는데 임금이 자주 수회·수박·마상제·격구 등을 보았다는 것은 무사의 무예수련을 장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유희적인 지경을 벗어나 몇몇한 스포츠로서 행하여진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이것을 뒷받침하여 주는 사실로는 「기락성은 활쏘기와 말타기를 잘 하므로 궁성을 지키는 교위라는 부관에 명하였다. 의종이 말을 타고 격구하는 것을 좋아하여 궁성을 지키는 장교로 끌어 올렸다.<sup>22</sup> 고려는 항상 북방외족의 위협을 받고 있었으나 대륙문화의 왕성한 수입으로 문물제도가 정돈되어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게됨에 따라 격구·씨름·투호·그네뛰기·널뛰기·석전 등의 여러가지의 유희오락이 성행되었다. 고려사에 「의종원년(1174) 5월 25일에 어사는 여쭙 말의 해답이 없으므로 집으로 돌아갔고 왕은 공치기의 장대를 각 6개 말안장 2개를 내렸는데 어사대는 왕의 분부로 수창궁 북문을 막고 소인배의 출입을 금하였다. 그리고 왕은 좌우 신하에게 내격구놀음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하며 공을 치는데 따를만한 사람이 없었다<sup>23</sup> 하였고 또 동서에서 「충렬왕 8년(1282) 5월 3일에 왕은 공주에 행차하여 갑자기 적응방을 패로 나누어 격구를 시켜 승리한 자에게 은으로 만든 병을 시상하였다.<sup>24</sup> 역시도 역대 왕들이 자주 격구를 명하여 보고 즐겼으며 수시로 한것만 보아도 관람적인 스포츠로서 널리 보급되어 일반화 하였음과 격구가 연무의 수단으로 행해졌다. 그러나 이렇게 장려발전하여 오던 격구가 출장하는 사람들의 사치와 음탕하고 난잡한 풍습 등으로 예종 2년(1107) 12월 여성격구가 금지된 것을 비롯하여 충숙왕 원년(1314) 5월과 공민왕 23년(1374) 5월에는 전반적으로 금지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 시대의 대표적인 유희는 '방응' 즉 매 사냥인데 시초에는 무사들의 사기를 돋구기 위해 수렵에 이용하였던 것이나 차츰 상류층의 오락으로 화한 경향이 있다. 매 사냥은 고려시대의 무사간에 매우 활발하게 행하여지면서 방응이라는 관청을 설치하고 응사를 두어 매를 기르고 훈련시켜 궁중의 매 사냥에 쓰게 하였다.<sup>25</sup> 그러나 방응을 통한 극도의 사치는 오히려 사기를 멀어뜨리고 부패를 촉진하는 요소가 되었다. 특히 고려시대 체육은 무예의 수단으로서만 아니라 스포츠로 널리 일반화 되었었다. 이상의 고찰을 요약하면 첫째, 외적의 방어와 권력쟁탈을 위한 무예의 체육으로 전락되었었다.

둘째, 교육사상은 인간형성의 목표를 知德을 갖춘 도덕적인 實踐人을 양성하는 데 있었으며, 治道의 한 방법으로 삼았다.

셋째, 佛·仙·敎의 思想은 精神史의 면에서 來世指向的이며 현실도피적인 人間形成을 가져왔다.

넷째, 유희활동은 스포츠로 일반화 되었으나 지나친 사치와 향락의 도구로 전락되었었다

<sup>21</sup> 상계서 고려사 17 의종 3년 2월 경오조.

<sup>22</sup> 상계서 고려사 100 기락성조.

<sup>23</sup> 상계서 고려사 41 공민왕 (4) 16년 3월 정만조.

<sup>24</sup> 상계서 고려사 29 충렬왕 8월 5월 신유조.

<sup>25</sup> 상계서 고려사 41 공민왕 (4) 15년 무오조.

## VI. 朝鮮時代의 體育과 人間形成

이 時代의 體育이 그 목적과 方法에 있어서 갑오경장 이전에 時代, 이후의 時代와는 상당한 差異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갑오경장 以前 封建時代의 체육은 주로 武術배양의 배경 밑에 대부분 무예를 그 內容으로 갑오경장 以後는 歐美·日本 등으로 부터 소개된 教育思潮는 體操·遊戯·教練 등을 內容으로 하여 行하여 졌다. 말하자면, 武士中心의 체육으로 變遷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朝鮮時代의 체육중 甲午更張 以前의 것만을 論하고자 한다.

朝鮮조는 어떤 全體的인 社會革命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고 단지 王朝가 바뀐 革命, 즉 一種의 王權交替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政治·經濟·社會·文化 등의 모든 부문이 고려적인 기반위에서 천천히 改革되고 재조직된 것이다. 이 時代는 建國初부터 배불정책을 내세워 유교를 숭상하여 政治의 지도이념으로 삼아 일종의 四大主義의 完成期를 이루었다. 이리하여 조선조는 극단의 文弱政治를 하게 되었고 儒學의 發展에 따라 武官의 士氣는 일반적으로 저하되고 무예 또한 침체를免치 못하여 무사나 國民들의 기상은 대체적으로 安逸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때때로 文武政治를 시도하여 武官登龍의 과거제를 두어 평화시에 군사훈련과 무예강습 등을 장려하였다. 世祖는 그의 政權爭奪을 계기로 무관등용을 위한 과거제를 大幅 整備強化 시켰으므로 화살·騎兵의 창 말을 타고 鎗·弓箭·鎗·과녁 등의 武術이 發展하였다. 그 후 壬辰·丙子の 두 난리를 通하여 國民들의 적개심은 고조되고 새로운 애국심이 각성됨으로써 到處에 義兵이 蜂起하는 등 후퇴하였던 武藝가 復活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特殊한 時期를 除外하고는 이 時代를 一貫하는 極端의 文弱과 武士 賤視는 무예의 不進과 더불어 체육 또한 종합적이며 調和的인 近代體育으로 싹트지 못하고 다만 高麗朝의 그것과 별차이 없이 무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무예중심의 체육에 그쳤던 것이다. 특히 말타기·활쏘기·창사·검술·격구·수박·마상재 등이 그 대표적인 것으로 행해졌다. 이 시대의 유교사상은 무예발전의 침체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朱子學은 중기이후의 새로운 학풍의 싹을 窒息하게 함으로써 유교적인 독단, 채국적인 사회를 더욱 굳게 하였으며 文弱한 人間像을 양산하게 되었다. 人間이 이상으로 하는 人間像은 文弱한 人間이 아니라 文武兼備의 人間상이 아니었던가! 그것은 古來로부터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것이다. 고구려인의 조의선인도, 신라의 화랑도 등은 바로 문무겸비의 인간교육의 場이었다. 이 시대는 유교적인 배경 밑에서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속에서 立志를 위한 교육의 중심이 바로 文을 숭상하고 무를 賤視한 社會의 병폐 내지는 그릇된 가치관의 設定속에서 심신의 조화적 人間형성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 시대는 철저한 계급사회로 立志榮達을 위해서는 과거제라는 제도 아래서 철저한 肅政정책에 의한 教育이 행해졌다는 것이다. 나라의 교육목적이 인재양성에 있었고 인재를 고르는 方法이 과거였으니 과거와 교육은 나눌 수 없는 제도였다. 과거가 나라로서는 一身을 榮達하는 機會가 되었다. 그리하

여 教育이 國民을 위한 教育이거나 學問을 위한 教育이 아니고 과거를 위한 教育으로 轉落되었다.

선조實錄에 儒生들은 평시에 武人을 異端視하여 奴隸와 같이 대하여 세상사정에 어둡고 空理空談을 일삼아서 民弊는 매우 컸다. 비변사가 말하기를 세상사람의 인정이 무사를 賤視 여기고 文은 貴하게 생각하였다. 왕은 軍士戰略의 重要性을 생각하고 武를 尊장하는 方法을 생각하여 생원 진사의 과에 武藝를 곁하여 試驗하게 했다. 그것은 국가의 保護와 敵의 侵略을 막기 위하여 命守한 것이다.<sup>26</sup> 하였으나 極端의 文弱과 武士를 賤視한 惡習을 慨歎하여 文士登龍의 科擧에도 武藝를 과하여 國防에 대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역시 文弱政治의 背景 밑에 武士의 體育이 低調를 면하지 못하였음을 그 悽愴한 壬辰亂을 겪고도 얼마 되지 않은 선조 33년에 訓練都監이 무너진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武士의 體育으로는 고려조에 行해진 여러 무예를 이어 받으면서 특히 말타고 활쏘고 창쓰기 검술 격구 털공쏘기 수박 등이 그 代表的인 것으로 행해졌다.

태종 9년(1409) 2월 17일에 兵曹가 武士를 뽑는 법을 상언하였는데 무장한 병사는 말타고 활쏘기 걸으며 활쏘기를 시험하여 군대를 보충하였으나 병법에 말이 빠른 말과 힘이 센 사람을 모아 한 병사를 만들었던 바 이제부터는 창패 갑옷 兵機를 갖추고 300보를 잘 달리면 중간 等級이 되고 힘이 남보다 좋아서 네 사람을 이긴 자는 높은 등급, 세 사람을 이긴 자는 중간 등급이 되도록 시험해 뽑아서 隊를 만든다 하니 왕이 이에 좃았다.<sup>27</sup> 하였으니 종전에는 말타고 활쏘기와 걸으며 활쏘기를 시험하여 병사를 뽑았으나 태종때부터는 창패, 갑옷 등으로 완전히 무장하여 빠른 자와 힘이 센 자를 選拔하여 部隊를 編成하였다. 이 時代의 體育은 武藝의 手段으로 「세종실록에 임금이 兵曹에 보병군사의 試驗하는 法을 전하기를 먼저 키가 8척 以上이 되는 건강한 사람을 뽑아 걸으며 활쏘기는 80보로 하되 세 화살중 두 화살을 맞추면 높은 등급이 되고 말타고 활쏘기는 세화살중 한번 以上 맞힌 사람이 갑옷 투구 화살군도를 갖추고 300보를 달려가야 된다. 그리하여 세가지 部分에 든자를 선발하는데 선발할때 남과 같이 뛰게 하지 말며 다만 혼자서 달리게 한다. 달리는 것이 빠르고 늦은 것은 물론하고 300보를 계주한 자를 선발한다」<sup>28</sup> 朝鮮朝의 體育은 무사양성의 側面에서 볼 수 밖에 없으며 선발과정을 通하여 힘의 養成을 위하여 키가 큰 병사를 選擇하였다는 면과 활쏘기 말타기 수박 완전무장으로 疾走는 바로 忍耐力과 持久力을 위하여 身體活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國初以後로 文을 崇尚하고 武를 輕視한 時代的 背景속에서도 國家防衛의 중요성 때문에 무예양성의 필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忠武公의 조카 李芬이 지은 <忠武公行錄>에 의하면 公은 어릴 적에 못아이들과 더불어

<sup>26</sup> 선조실록, 39 26년 6월 기해조.

<sup>27</sup> 삼개서 태종실록 17 태종 9년 2월 경인조.

<sup>28</sup> 삼개서 세종실록 27 세종 7년 3월 신묘조.

遊戯하면서도 매양 戰爭하는 놀이를 즐겼고 그럴 적마다 아이들은 그를 대장으로 올려 세우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활과 화살을 차고 다니며 마을 안에서 비록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라도 義理에 벗어나는 者가 있으면 곧 화살을 뽑으려 했기 때문에 마을 어른들도 그를 무섭게 여기더라는 것이니 그만큼 호연한 氣像을 엿볼 수 있다. 충무공이 28세 되던 해에 訓練院別科試驗에서 말을 달리다가 말이 거꾸러지며 같이 넘어져 왼편다리가 부러졌을 때 한 발로 일어서 마당가에 있는 버들가지를 꺾어 상처를 싸매고 나오던 장무쌍한 모습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거니와 4년후 式年武科의 武經講讀試驗에서 黃石公의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시험관이 「장량이 신선 赤松子를 쫓아 놀았다 했으니 장량이 과연 죽지 않았겠는가?」 하고 물었을 때 공은 조금도 서슴치 않고 즉석에서 대답하되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는 법이기도 하거니와 또 綱目에 壬子 6년에 장량이 추했다 했으니 어찌 신선을 따라가 죽지 않았을 리가 있겠소.」 하여 시험관들로 하여금 놀라게 했다 하였음은 충무공이야말로 우리가 이상으로 삼은 文武를 양전한 인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朝鮮時代의 人間形成은 儒學의 背景 아래 철저하게 계급적 사회로 문을 숭상하고 무를 賤視하였으니 인간형성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정신적으로 儒學의 思想이 聖人이 되는데 있었다. 이 시대는 계급에 따라 職業·직위 및 대우가 다른 것은 물론이고 居處·科學·入學·負擔(세금)까지도 일정한 규정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계급과 교제 결혼을 하지 않으며 남녀의 差別이 심한 시대이었으므로 당시의 遊戯·娛樂에서도 상층과 서민층과는 구분되었다는 事實이다. 당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農民像을 살펴보면 「낮에는 떠들 베고 밤에는 새끼를 꼬아 빨리 지붕을 이어야 비로소 百穀의 씨앗을 뿌린다.」<sup>29</sup> 또 동서에 밝거든 나가 농사 짓고 저물거든 돌아와서 쉰다. 또한 모든 힘을 다하여 농사에 힘써야 한다. 무릇 우리같이 농사짓는 사람들은 집에 들면 부모에게 孝道하여 순종하고 집을 나가면 이웃과 和睦하며 부지런하고 儉素하며 道理를 쫓아서 각자의 業으로 하는 일을 안정시켜야 한다」<sup>30</sup> 하였으니 農民은 자칫하면 평소에 조그만 즐거움 마저 빼앗기기 쉬었다 生産道具化된 一般 百姓에게는 자기를 위한 여가활동이나 娛樂의 餘裕가 없는 실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상에서 촌락에서는 祭禮나 명절에 古來의 遺風을 쫓아 농한기에는 씨름·그네뛰기·줄다리기·농악 등을 행하기도 했다. 정월이면 명절을 계기로 한 부녀자들의 널뛰기와 청소년의 연날리기 閑良들의 활쏘기·씨름·수박·썰매·웃놀이·쌍륙·장기·돈치기·격양·공기·줄타기·줄다리기·줄넘기·석전·매 사냥 등이 성행하였음은 재미있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娛樂이나 遊戯가 대부분 명절을 중심으로 하여 행해졌으며 여성의 유희인 널뛰기·줄넘기·그네뛰기 등이 있었다. 특히 그네뛰기는 그윽한 숲사이로 울긋불긋한 옷을 입은 부녀자들이 선녀와 같이 넘나드는 모양은 정녕 한쪽의 아름다운 풍경화요 民族의 情緒가 넘쳐 흐르는 유희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시대의 教育思想

<sup>29</sup> 권농절목서 p.57.

<sup>30</sup> 註 ㉞와 같음.

은 儒學의 배경 밑에 항상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친부의 資質을 잘 나타나게 하여 人倫과 道理를 중리하여 인간의 도덕적 행동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교육의 목적은 이와 같은 倫理·道德에 중점을 두고 선량한 인간으로, 그 최고의 이상을 성인군자의 人品에 到達하는데 두고 있어서 教育方法은 무엇보다도 聖賢들의 日常生活의 行動을 본받아서 이것을 실행하는 데 두고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教科는 小學·四書·五經 등이었다. 또한 교육의 목적이 人材養成에 있었고 人材를 고르는 方法이 과거였으니 과거와 教育은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였다.

이상의 고찰을 要約하면

첫째, 武藝의 手段으로 體育이 이루어 졌으며 國家防衛의 側面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였다.

둘째, 선비思想은 철저한 계급사회를 가져 왔으며 身體의 活動을 沮害하였다.

셋째, 朱子學의 背景아래 人間形成의 目標를 聖人君子의 人品에 두었으므로 文弱의 병폐를 가져왔다.

네째, 徹底한 계급사회의 배경아래 문벌렬연, 지역적 派黨을 가져왔고 閉鎖的인 人間形成을 초래했다.

## VII. 結 論

지금까지 制限된 材料를 갖고 歷史的 事實위에 展開된 體育을 人間形成이란 側面에서 考察해 본 結果는 다음 몇가지로 要約될 수 있을것 같다.

첫째, 어느 시대를 莫論하고 開化期와 繁盛期에는 體育을 통한 人間形成의 作業이 強力히 또는 順調롭게 잘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즉 身體育成의 過程을 통해서 그 時代와 社會가 要求하는 心身의 諸要素를 키웠다는 것이다.

둘째, 心身의 調化的 人間形成에 目標을 두고 追求한 社會나 國家는 번영할 수 있었으니 바로 花郎道精神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으며 文化的으로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이다.

셋째, 儒·佛·仙敎의 影響아래 우리민족 고유의 정신은 빛을 잃어 갔으며 朝鮮時代의 朱子學은 극도의 文弱을 가져왔고 身體活動은 武藝의 수단으로 전락되어 政治·經濟·社會文化的으로 疎離되었으며 生存權과 국가의 存立權마저도 지킬 수 없었던 것이다.

네째, 諸般時代의 體育이 心身兩面의 發達을 기도한 것만은 事實이나 心身二元論的인 立場에서 身體的面을 경시한 결과는 人間形成에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人間育成이 心身의 조화적 人間像을 理想으로 삼아 追求하여야 할 것이며 健全한 신체는 健全한 정신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되새겨 教育의 場에서 心身一元論的인 立場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본 대학에서 지급하는 학술연구 조성비로서 이루어졌으며 물질양면으로 지원하여주신 鄭 鎭學長님께 감사드린다.

## 參 考 文 獻

1. 金善陽著, 教育史 營雪出版社, (1978)
2. 文炯滿著, 韓國教育의 比較史의 理解 營雪出版社, (1978)
3. 申采浩著, 朝鮮上右史 三星文化文庫, (1978)
4. 李殷想著, 忠武公의 生涯와 思想 三星文化文庫, (1976)
5. 문교부 體育史, (1973)
6. 大韓體育會 體育白書, (1975)
7. 柳玲譯, 일리아드, 오넷세이 正音社, (1963)
8. 정병욱역, 三國史記, 서영출판사, (1978)
9. 정병욱역, 三國遺事, 서영출판사, (1978)
10. 이병도역, 高麗史, 서울국제신문사, (1949)
11. 李朝實錄, 일본사료집성편찬회, 동경도서간행회, (1976)
12. 韓基彥著, 教育史, 法文社, (1963)
13. Forbes, C.A. Greek Physical Education, New York The century Co, 1927.
14. Van Dalen, D.B. Mitchell, E.D. and Bennet, B.L., A world History of Phisical Education,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53.
15. Leonard, F.E, and Affeck, G.A. Guide to the 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Philadelphia Lea and Febiger, 1974.
16. Kiran, John, The story of the Olympic Games, New York: Frederick A. stockes Co, 1948



## A Historical Review of Korean Physical Education in view of Character Formation

Byoeng-Sik Lee

*Gwang-Ju Health Junior College.*

### >Abstract<

The history of human beings originated from education which was composed of immitation, memory, and repeat through physical activity. The education was activized to lead daily life. Ancient people took advantage of the physical activity to solve the problems of housing, food, and clothing as well as to defense their tribes collectively.

When we devide our history into prosperous period and declining one, the period of active physical activity was the period of prosperity with sound national spirit and progeessive solidarity.

The purpose of education is to make manly man or to build up one's character, but this purpose declined to 2nd or 3rd importance in today's education. In old days we could find our traditional spirit of Kokuryo and in Hwangrang Spirit in Silla. In both countries physical education was taken a serious view. We are sorry that today's education is reduced to a tool of success in life, which was shown in state examination system in Lee Dynasty.

Under the influence of Confucianism, Buddhism, and Zen, reality escapism and contempt of militarism brought stagnation of physical education when we see cultural, educational, and spiritual facades of Lee Dynasty. Thereupon, weakness of defence power and consistant foreign aggression were brough about and embodiment of sound character faded day by day. In Hwarang Spirit Silla people thought the body and spirit was one and regarded it the best ideal to drill body and spirit together. Through the spirit the country could unify the peninsula and became a prosperous nation cultually.

Under the influence of Confucianism, respect of scholarship and negligance of militarism spirit influenced various parts of Lee Dynasty society. According to the trend of militarism contempt, they layed stress on prestige and dignity and used to say, "Gentleman doesn't flounder even in the water." Physical exercise, which is sacred

labor, could not be expected in the period. We should not forget that ancient Greek people thought a man of both wisdom and activity, who had literary and military accomplishments, was an ideal man. As we reviewed in our history, the period which emphasized balanced development of body and spirit was prosperous and could keep peace.